

본 작품들의 열람기록은 로그파일로 남게 됩니다. 단순 열람 목적 외에 작가와 안동독립운동기념관의 허락없이 이용하거나 무단 전재, 복제, 배포 시 저작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2010 안동 독립운동 스토리텔링 공모전

구 분	내 용
제목	광복의 아들들
수상내역	대학일반 부문 우수상
작가	윤혜영
소재	만주에서의 독립운동
적용 콘텐츠	가무 악극
기획의도	<p>안동 출신 독립운동가인 이상룡과 이광민.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가문이다. 척박한 땅 만주에서 아들과 형제를 독립운동가로 키워야하는 슬픈 현실, 그들의 아프고도 장엄한 이야기를 한국 전통 가무악으로 풀어본다.</p>

광복의 아들들

시간 일제 치하

공간 안동과 서간도

인물

이상룡 안동에서 의병기지 구축에 실패하고 만주로 가족과 함께 이주해 독립운동에
몸을 바친다

이광민 이상룡의 조카

이준형 이상룡의 아들

이봉의 이광민의 아버지

고수현 이광민의 처

이상호 이광민의 아들

이회영 이상룡과 함께 만주에서 독립운동 활동

이동녕 이상룡과 함께 만주에서 독립운동 활동

제1막 민족의 위기

1장 일제의 만행

무대 위 일본 군사들의 군무, 쫓기는 명성황후와 시녀들의 모습.

그리고 총성, 쓰러지는 명성황후.

일본 군사에 의해 어디론가 끌려가는 모습 뒤이어 일장기를 든 군사들의 출현.

현란한 조명과 음악이 멈춘 후, 무릎 꿇은 선비들의 모습.

선비의 머리카락을 자르려는 일본 군사와 반항하는 선비.

다시 총성, 선비는 쓰러진다.

암전.

2장 가야산 의병기지

일제의 습격이 있는 후의 어수선한 모습.

부서진 군막과 여기저기 쓰러진 사람들.

이상룡과 동생 봉의, 그리고 어린 아들 10세 광민이 이를 물끄러미 보고 있다.

봉의 형님, 이를 어찌합니까.

의병 기지로 마련해 둔 이곳에 일본놈들이 쳐들어올 줄이야…….

이제 어쩍니까, 형님.

광민 (두려운 듯 아버지 뒤에 숨어) 아버지, 우리 이젠 훈련을 배울 수 없어요?

상룡의 노래

아, 가야산이여, 산신령이시여.

일제를 몰아내려 의병을 일으켜야

내나라 내민족 되찾아 광명을 누릴진대.

어찌 산의 문을 열어주셨소.

어찌 그놈들의 발을 들여놓게 하셨소.

가야산이여, 산신령이시여.

봉의 이제 어찌합니까, 형님.

상룡 다 우리 탓이다.

봉의 예?

상룡 (어린 광민의 어깨를 꼭 움켜쥔다)

모두 다 우리 탓이야.

실력이 부족하고 아직은 전쟁에 아둔한 모두 우리 탓이다.

이제 우리 스스로 깨어날 때야.

봉의 뭘 어찌시렵니까, 형님.

상룡 이 터에 학교를 세우자.

봉의 여기에 다시 학교를요?

상룡 우리 스스로 깨우쳐야 해.

3장 협동 학교

<민족 협동 학교> 라는 학교의 간판 크게 보인다.

칠판에서 산술을 가르치는 교사와 열심히 이를 보고 공부하는 15세 학생들.
그 중에 광민과 준형이 있다.

준형 (하품하며) 선생님,

교사 그래, 준형아, 왜?

준형 무슨 소리 안 들리십니까.

교사 무슨 소리?

준형 자꾸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공부가 잘 안 됩니다.

교사 내 귀엔 아무 것도 들리지 않는구나.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준형 뱃속에서 거지 스무놈이 밥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한바탕 웃음 바다가 된 교실.

교사 하하하, 그래, 밥 시간이 되었구나.

점심들 먹고, 다시 시작하자꾸나.

학생들 일제히 대답하며 우르르 밖으로 나간다.

이 때 남아있는 한 학생, 광민.

교사가 나가려 하다 광민을 발견한다.

교사 광민이는 왜 안 나가고 있느냐.

광민 이 문제가 도통 풀리지 않아서 말입니다.

교사 하하, 배불리 점심을 먹으면 두뇌 회전도 빨라질 게야.

어서 나가서 동무들과 같이 먹거라.

광민 예.

교사가 나간 후, 광민 책상에서 골똥히 생각한다.

광민의 노래

우리 가문에서 세운 훌륭한 학교, 협동학교
신학문 배워 머리를 깨우치고 몸을 단련해
일제의 마수에서 벗어나 독립을 꿈꾸네.
아직 어린 마음, 약한 몸이지만
내 나라 내 겨레 향한 마음은 뜨겁지요.
선조부터 내려오는 나라 향한 이 마음
변치 않고 오래오래 간직할게요.
변치 않고 오래오래 간직할게요.

이 때, 상룡이 교실 안으로 들어온다.

상룡 광민아, 뭘 하고 있는 게야?

광민 백부님.

상룡 어서 가서 점심 먹지 않고.

광민 예, 잘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요.

상룡 허허, 그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 번 해보거라.

영리한 머리도 중요하지만 사나이는 끈기와 포부가 있어야지.

광민 예, 백부님, 그런데 교실에는 왜 일이십니까.

상룡 마지막으로 한 번 둘러보러 왔단다.

광민 마지막으로요?

상룡 아직 전해 듣지 못한 게로구나. 곧 서간도로 떠날 것이다.

광민 (놀라며) 만주 말씀이십니까?

상룡 오랫동안 고민해보았다. 이 땅에서는 큰 일을 도모하기 힘들어.

여기 저기 일본의 눈이 우릴 주시하고 있단다.

광민 그럼 우리 학교는 어찌합니까.

상룡 네 아버지가 남아 이 학교를 지킬 것이다.

그리고 든든한 네가 있지 않느냐?

광민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상룡 뭐?

광민 저도 데려가십시오, 백부님.

상룡 광민아, 만주는 아주 멀고 험한 곳이다.

가다가 일본 경찰들의 검문에 걸리면 모두 죽을 수도 있어.

광민 그래도 만주에 가면 조국 광복을 위해 더 큰 일을 할 수 있잖습니까.

아직 어린 나이지만, 백부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상룡 그래, 함께 가자. 가서 조국의 광복을 위한 투쟁에 너도 큰 몫을 하거라.

상룡의 노래

가자, 함께 가자.

내 고향 안동, 이 따뜻한 고장을 떠나

저 추운 북으로 함께 떠나자.

추풍령 넘어 서울을 거쳐 신의주까지.

그리고 압록강 넘어 저 만주별관으로.

잠시 떠나는 내 고향, 발길이 떨어지지 않지만

내 다시 돌아오리라

조국의 광복을 맞이하는 날,

다시 돌아와 이 흙에 얼굴을 부비고

내 고향 땅에 몸을 누이리라.

그러나 지금은 떠나야 할 때.

눈물과 설움은 잠시 묻고

떠나자, 가자, 함께 가자.

암전

스크린으로 보이는 설원, 그리고 눈보라.

상룡과 광민 일행이 추운 눈보라를 뚫고 어디론가 향하는 모습.

무대에도 눈발이 날린다.

제2막 제2의 고향 서간도

1장 새로운 고향

상룡의 아들 준형과 광민은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한 후, 정리정돈하고 있다.

상룡은 무대 저편, 책상에 앉아 책을 보고 골똘히 무언가 생각한다.

준형이 방석의 먼지를 떨며 광민에게 장난을 건다.

광민 (기침하며) 켜켜, 형, 뭐하는 거야?

준형 하하하. 배고프지 않아? 아직 점심 때가 멀어서 말이야.

먼지라도 좀 먹어두라고.

광민 뭐라구? 하하하.

다시 청소하는 둘.

준형이 허리를 펴고는 광민을 바라본다.

준형 너, 괜찮은 거야?

광민 뭐가?

준형 아버지랑 어머니를 고향땅 안동에 두고 훌훌단신 이 곳에...

광민 형, 그런 말 하지마. 형은 내 친형이나 마찬가지로

백부님은 내 큰아버지야. 우리가 남이야?

준형 그렇긴 하다만.....

광민의 노래

따뜻한 내 고향 안동,

초록 푸르른 산과 강이 흐르는 내 어머니

그러나 이제 그리움은 저편에

약한 마음과 내 감상은

저 압록강에 던져버렸네.
척박한 땅 이 곳이 새로운 내 아버지.
매서운 바람은 새로운 내 어머니.
광복에 대한 꿈과 의지만 가지고
달려갈 테야.
앞만 보고 달릴테야.

광민 약한 마음, 내 감상은 저 압록강에 던져버렸어.
준형 자식, 너도 이제 어른이 다 됐구나.

이 때, 이동녕과 이시영, 그리고 이시영의 조카딸 고수현이 들어온다.
상룡이 일어나 이들을 먼저 반긴다.
수현이 목례한다.
광민과 준형이 그녀를 주목한다.

상룡 어서들오게.
동녕 형님, 인사하십시오. 이시영 선생이십니다.
상룡 소문으로만 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영 서간도에서 조국의 사람을 만나는 것은 늘 반갑지만 슬픈 일입니다.
상룡 그렇지요.
시영 앞으로 우리 민족 자치기관인 경학사 설립에 큰 힘을 쏟아주십시오.
상룡 잘 부탁드립니다.

이시영의 노래

이 척박한 만주땅에서 조국의 형제를 만나면
반가운 마음에 웃음이 나다가도
지금의 현실에 눈물이 나네.

이동녕의 노래

나라를 빼앗기고 살길을 찾아

남의 나라 땅으로 훌러훌러 여기까지.

기둥이 되어주소

빔줄이 되어주소

비바람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조선인 뭉쳐서 힘을 낼 수 있도록

기둥이 되어주소

빔줄이 되어주소

상룡 그리하리다. 우리 모두 힘을 합칩시다.

상룡과 동녕, 시영이 손을 맞잡는다.

상룡 아, 소개가 늦었습니다.

 제 아들 준형이, 그리고 제 조카 이광민입니다.

준형과 광민이 인사한다.

상룡 자, 할 일이 많으니 이야기도 많습니다.

 좀 앉아서 말씀 나누시지요.

상룡과 동녕, 시영이 무대 저편 탁자에 앉아 이야기 나눈다.

혼자 남은 수현.

준형이 말을 건다.

준형 저희 또래로 보이십니다.

수현 예, 올해로 18살입니다.

광민 저랑 동갑내기시네요.

수현 그럼, 우리 동무합시다.

광민 하하. 좋아요.

준형 이 곳엔 얼마나 계셨던 겁니까.

수현 고모부를 따라 이 곳에 온 지는 이년이 되어갑니다.

그러나 이렇다 할 단체 하나 없이 이주한인들이 힘겹습니다.

광민 그래서 저희와 백부님이 왔습니다.

이제 곧 좋은 날이 오겠지요.

탁자에서 일어나 다가오는 상룡, 동녕, 시영.

상룡 애들아, 허리끈을 풀러라.

준형 예? 아버지, 무슨 말씀이십니까.

동녕 이선생님과 가족들을 환영하는 자리를 마련했어.

춥고 배고픈 날들을 잘 견디고 여기까지 오셨지.

아, 마침들 오는구나.

한인이주민들이 음식과 악기 등을 들고 왁자지껄 들어온다.

음식상이 펼쳐지고 춤과 노래가 시작된다.

상룡과 광민, 준형은 마을 어른들께 인사하고 담소를 나누며 축제에 빠져든다.

흥겨운 노래와 춤.

무녀들의 노래 (전통가락)

좋은 날이 올 것이야.

밝은 그날이 올 것이야.

풀뿌리 죽 썰어먹고 배를 움켜 쥐어도

광복의 그날을 생각하며 참고 견디어보세.

좋은 날이 올 것이야.

밝은 그날이 올 것이야.

척박한 이 땅에 내 잠시 머물지만

따뜻한 내 고향 돌아갈 날 기다리네.

좋은 날이 올 것이야.

밝은 그날이 올 것이야.

춤과 노래 잔잔해지며 암전.

2장 사랑

<신흥무관학교> 라는 깃발 흔들린다.

건장한 청년 광민이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지도한다.

광민 머리만 깨우쳐서는 실천하지 못한다.

몸과 체력을 단련하여 어떤 무력에도 버틸 수 있는 힘을 키워야해.

광민이 시범 보이며 아이들이 따라한다.

아이들의 흥미진진한 대련이 시작된다.

대련이 끝나고 다시 무대 한 쪽으로 옮겨가 무술 동작을 연마한다.

무대 어두워지며 다른 한 쪽 무대 밝아진다.

수현과 준형이 큰 종이에 글씨를 쓰고 있다.

준형 저도 신흥무관학교 졸업생이라구요.

수현 네?

준형 아버지는 늘 광민이만 총애하십니다.

수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준형 보십시오. 늘 아버지를 보필하는 것도 광민이고.

저렇게 민족교육 앞장서는 일등 교사도 광민이잖습니까.

수현 각자 맡은 일이 다를 뿐이겠죠.

준형이 붓을 팽개친다.

준형 전 정말 모르겠어요.

아버지의 기대를 거스른 적도 없는데, 왜 늘 둘째가 되어야하는지…….

수현 둘째라고 생각치 마세요.

 단지 서로가 잘 하는 영역이 다를 뿐이에요.

 선배님은 몸이 날래고, 또 머리가 영리하지 않아요.

 언젠가 그 기지를 발휘할 날이 꼭 올 겁니다.

준형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수현 그럼요.

준형 저, 수현씨…….

수현 예, 왜요?

준형 아닙니다.

수현 왜 그러세요.

준형 혹시 마음에 품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수현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준형 이제 혼기도 짝 찾는데, 혼사에 대해 일언반구 말이 없으니 말입니다

수현 글썄요…….

준형 혹시 정인이 없다면…….

수현 있습니다.

준형 예?

수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말할 수 없어요.

 큰 일을 하는 분에게 처자식은 짐이 될 뿐이겠지요.

준형 그렇군요……. 제가 헛된 마음을 품었군요.

수현 무슨 말씀이신지요.

준형 혹시 그 사람이 광민이 입니까.

수현 …

준형 그렇군요.

수현 비밀로 해주세요, 저 혼자만의 마음입니다.

준형 네, 그러지요. 창고에 좀 다녀올게요.

준형의 노래

외롭고 추운 이 땅에서

어깨에 기대고픈 누군가 그리워

그대가 그 사람이라 생각했네
하지만 그대 마음 속 다른 사람
내가 들어갈 자리 없다면
나 또한 그대 생각 걷어내리
마음 속 자리한 그대 모습 걷어내리
외롭고 추운 이 땅에서
어깨에 기대고픈 누군가 그리워

준형이 무대 밖으로 나간다.
수현이 남은 종이들을 정리하는데 광민이 등장한다.

수현 끝나셨어요?
광민 오늘 대련이 아주 흥미진진했어요.
날이 갈수록 학생들의 실력이 늘어가네요.
수현 저도 좀 가르쳐주세요.
광민 그럴까요, 한 번 서보세요.

수현이 가슴에 품은 책을 내려놓고 자세를 잡는다.
광민이 수현의 팔을 잡아 자세를 고쳐준다.

광민 자, 따라해 보세요, 하나 둘!

수현의 자세가 어색하자 다시 수현의 자세를 고쳐주려다 얼굴이 마주친다.
광민 놀라 멀리 떨어지고
수현도 당황한다

광민의 노래
세상에 태어나 처음 느끼는 마음
내 심장 소리가 이렇게 컸던가
두 손이 떨리고

등에는 땀이 흐르네
나도 모르는 내 마음
세상에 태어나 처음 느끼는 마음

수현의 노래
세상에 태어나 처음 느껴요
자꾸만 거울을 보게 되고
머릿속엔 그대 생각이
구름처럼 뭉게뭉게
그러다 빗줄기 되어 쏟아지네
세상에 태어나 처음 느끼는 마음

광민과 수현의 이중창
세상에 태어나 처음 느껴요
척박한 이 땅에서 새싹이 돋아나요
매서운 찬 바람에 꽃향기 날아와요
둘이 합쳐 하나되어
더 큰 하나 되어 광명의 날 기다려요
세상에 태어나 처음 느끼는 마음

광민과 수현이 손을 잡는다.

광민 날 믿고 따라와 주겠어요?
수현 늘 그렇게 할게요.

광민과 수현의 노래
더 큰 하나 되어 광명의 날 기다려요

암전되고 스크린에 영상 펼쳐진다.

3.1 만세운동의 모습, 사람들의 만세 소리 우렁차다

청산리대첩의 전쟁 모습, 총과 칼이 부딪히는 잔인하고 날카로운 소리.
승리의 함성 외치는 독립군들의 모습.

3장 서로군정서

강단에 선 이상룡의 연설
그 곁엔 광민이 서 있다.

상룡 지난 3월 1일, 우리 한민족은 간악한 일제의 식민통치에 반발해
마침내 전민족적인 시위가 시작됐습니다.
한반도에서 시작된 이 운동이 이 곳 만주까지 전달되어
이 곳에서도 우리는 성공적인 시위를 마쳤습니다.
또한 일제 침략군을 맞아 청산리대첩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우리는 독립 의지를 실천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주저앉을 때가 아닙니다.
목숨을 잃은 동지들을 위해서라도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아직 갈 길이 멀기만 합니다.
우리 다시 힘을 모아 간도에 흩어진 우리 민족들을 모아
다시 한 번 일어섭시다.

독립투사들과 간도이주민들의 합창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목이 터져라 외쳐본다
대한독립 만세
흩어져간 내 나라 형제들
다시 모아 한 번 더
대한독립 만세
다시 한 번 일어서자.
광복 향한 이 목소리 그치지 않으리라
대한독립 만세

우뢰와 같은 함성과 박수소리.

강단에서 내려온 상룡은 주민들과 이야기 나눈다.

상룡 오늘 좋은 소식 하나 전해드리려 합니다.

늘 내 곁에서 손과 발이 되어준 나의 동지이자 아들,

광민이 얼마 전,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오늘이 백일날이라 하니 모두 축하해 주십시오.

광민과 수현이 사람들 앞에서 인사한다.

광민 조국이 남의 손에 뺏긴 이 형편에 허례허식은 하지 않겠습니다.

형식보다는 저희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해주십시오.

대한의 건아로 잘 키우겠습니다.

수현 잘 키우겠습니다.

수현과 사람들 퇴장하고 상룡, 광민, 준형, 이회영, 이동녕이 남아 탁자에 앉는다

상룡 의논할 문제가 좀 있습니다.

동녕 국내로 독립군 요원들을 파견하는 건은 다들 알고 계시지요.

회영 유격전 대비 때문에 그러시오?

동녕 그보다 급한 문제입니다. 자금이 부족합니다.

상룡 나도 걱정하고 있었소.

광민 맞습니다. 당장 항일전에 대비할 무기 조차 없습니다.

상룡 준형아, 네가 안동에 다녀와야겠구나.

준형 예? 안동에는 왜…….

상룡 남은 전답을 모조리 팔아오너라.

광민 백부님, 그것은…….

회영 나도 돕겠네. 집에 사람을 보내겠어.

상룡 그래, 내 나라 내 땅이 없어질 판에, 논밭이며 금부치가 무슨 소용이겠나.

동녕 그래도 일부 남겨두시는 것이…….

상룡 아니다, 모두 정리해 오너라. 준형이는 지금 떠날 준비를 하고.

광민이는 연해주에서 무기상을 알아봐.

준형 아버지, 제가 연해주로 가겠습니다. 광민이를 안동으로…….

상룡 그게 무슨 소리야.

준형 늘 큰 일은 광민이가 도맡아하고

전 가서 땅이나 팔아 돈을 구해오라는 말씀입니까.

상룡 자금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알고도 그렇게 말하는 게냐?

광민 형님, 정 그러시다면…….

상룡 광민이는 가만히 있거라. 어서 떠나지 못 해? 애비의 말을 거역할 셈이냐?

준형 저도 할 만큼 했습니다. 아들로써 독립군으로서 인정받고 싶단 말씀입니다.

상룡 아니, 그래도 이 녀석이!

준형 가서 돈을 보내고 저는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상룡 거기 서지 못해!

준형, 밖으로 나간다.

광민 형님, 형님!

동녕 준형아!

회영과 동녕이 준형을 따라 나간다.

상룡 사사로운 감정에 힘과 시간을 빼앗겨선 안 돼.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거늘…….

광민 백부님, 준형이 형님은 정이 그리웠던 겁니다.

상룡 아까 논의했던 대로 일을 진행해라.

상룡이 나가고 광민이 책상에 앉는다.

아이를 안고 나타나는 수현.

수현 여보,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언성이 높아지셨습니다.

광민 아니오.

아이를 안아보는 광민.

광민 나는 네게 어떤 애비가 되어야 할까.

광민의 노래

늘 따뜻하고 푸근한 아버지가 되어주마

차갑고 모진 비바람 막아주는 아버지

어두운 밤 폭풍우 속 등대가 되어주마

그러나 현실은 너무도 잔혹하여

너도 나처럼 총칼을 메어야할 때

너에게 조국을 되찾아주려마

내 고향 안동으로 널 데려가

푸른 숲 속 뛰어다니며

냇가에서 물장구 치자

늘 따뜻하고 푸근한 아버지가 되어주마

차갑고 모진 비바람 막아주는 아버지

광민이 수현과 아이를 껴안는다.

이 때 갑자기 총 소리 들린다.

수현 여보, 이게 무슨 소리지요?

이동녕이 뛰어들어온다.

동녕 광민아, 어서 피해라.

어서 피하세요.

지금 일본군이 쳐들어오고 있어.

광민 그게 무슨 소립니까.

동녕 지금 서북간도 곳곳에 퍼진 독립군 기지를 하나하나 박살내고 있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어서 백부님을 모시고 삼원포로 떠나라.

동녕 퇴장.

광민 여보…….

수현 가세요.

지금은 저나 아이보다 독판님이 더 중요한 상황입니다.

백부님께서 돌아가시면 이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어서 가십시오, 어서요.

광민 부디 몸 조심하십시오, 부인.

무대 위는 부산해진다.

음악과 조명 현란하다.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아녀자들과 독립군 요원들.

일본군이 들이닥쳐 이들을 모조리 총으로 쏘아 죽인다.

쓰러지는 사람들.

아기를 안은 수현,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는 상황.

준형이 나타나 그녀의 손을 잡고 어디론가 뛰어간다.

무대 한 켠, 좁은 옷장 속으로 들어가는 준형과 수현, 아기

수현 안동으로 가셨잖습니까.

준형 가는 길에 소식을 듣고 돌아왔습니다.

수현 백부님은,

준형 췌!

준형이 옷장에 달린 휘장을 친다.

들이닥치는 일본군.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나가려고 하는 찰나, 아이의 울음 소리 들린다.

휘장을 걷는 일본군, 준형을 발견한다.

일본군 쥐새끼 같은 조센징!

이상룡은 어디있나?

어디로 빼돌렸어?

준형 모른다.

일본군 빠가!

총을 건어찬 준형이 일본군과 몸싸움을 한다.

그러다 일본군의 칼에 찔리는 준형, 쓰러진다.

총을 주워 준형을 쏘려는 일본군.

수현이 가슴 속 은장도를 꺼내 일본군을 찌른다.

쓰러지는 일본군.

준형을 부축하고 수현은 퇴장.

암전.

4장 동지의 죽음

무대에 조명이 켜지면 폐허가 된 간도의 모습.

영상으로도 보인다.

여기 저기 부서진 각목들.

이상룡과 광민, 등장.

광민이 이상룡 부축하며 짐을 들고 있다.

상룡 다시 처음부터,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겠구나.

수현 등장

수현 백부님, 여보!
광민 무사하셨소.
수현 네, 아무 탈 없으셨는지요.
상룡 그래, 너도 무사했구나.
수현 그런데, 그런데 아주버님이……. (울먹인다)

무대 한 켠 불 켜지며 침상에 누운 준형의 모습.
상룡과 광민이 이동한다.

광민 형님, 형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수현 상처가 너무 깊었습니다.
상룡 준형아.
준형 아버지, 광민아.
광민 형님, 형님, 어서 일어나세요, 형님 없이는 안 됩니다.
준형 광민아, 아버지를 잘 보필해라.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내가 하지 못한 일이다.
광민 아닙니다, 형님, 일어나세요.
상룡 준형아, 약한 마음 가지면 안 된다.
 일어나야지.
준형 아버지, 못난 아들 용서하십시오.
 늘 아버지처럼 큰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타고난 그릇이 작아 이렇게 못난 모습만 보여드립니다.
광민 형님.
준형 아버지, 조국의 광복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광민 형님!

준형은 상룡의 손을 잡고 있다가 힘없이 쓰러진다.

오열하는 광민과 수현.

상룡은 뒤로 돌아 눈물을 흘린다.

구슬픈 음악으로 들린다.

한인이주민들 등장하여 장사치른다.

준형을 멍석으로 말아 등에 이고 천천히 무대 중앙으로 걸어나간다.

조가 (합창)

가시오, 어서 떠나시오

훨훨 날아 떠나시오

차가운 땅에 육신이야 묻히지만

고매한 정신은 이제 날아 떠나시오

노곤한 육신은 여기에 누이고

한 많은 영혼은 저 세상 편히 가시오

광복의 그날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국의 아침을 만나지 못하고

차가운 새벽 공기

아침 이슬 사그라드네

가시오 어서 떠나시오

훨훨 날아 떠나시오

차가운 땅에 육신이야 묻히지만

고매한 정신은 이제 날아 떠나시오

노곤한 육신은 여기에 누이고

한 많은 영혼은 저 세상 편히 가시오.

죽어간 독립군들의 얼굴, 영상으로 나타난다.

암전

5장 민족유일당으로 다시 시작이다

탁자에 둘러앉은 이상룡, 이회영, 이동녕, 이광민.

이상룡은 연신 기침한다

광민 무엇보다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저기 흩어져있는 세력을 통합시켜야 해요.

회영 그래, 네 말이 맞아.

 간도 참변 이후로 서간도 전체가 피폐해졌어.

광민 서간도를 포함해서 남만주 독립군을 통합합시다.

 대한통의부라 명명하고 힘을 끌어모으겠어요.

동녕 그럼 지금부터 움직입시다.

광민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회영과 동녕, 상룡에게 인사하고 퇴장한다.

상룡의 기침소리

광민 백부님, 많이 불편하시면 들어가 누우시지요.

상룡 그래, 이제 내 할 일은 여기까지다.

광민 그게 무슨 소리이십니까.

상룡 내 모든 권한을 너에게 넘기려 한다.

광민 백부님.

상룡 이제 나서거라.

 앞으로 나서.

광민 아직은 아닙니다.

상룡 이미 충분한다.

 네 나이 열여섯에 나를 따라 이곳 서간도까지 왔다.

 내 곁에서 보고 배운 것만 해도 넌 이미 충분히 장성했어.

 이 넓은 땅 남만주 곳곳에 우리 한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다.

 사람을 잊어선 안 된다.

 그들이 살아야 나라도 사는 것이야.

광민 예. 명심하겠습니다.

상룡 그리고 무장투쟁은 멈추어선 안 된다.

가만히 손을 놓고 기다리기만 해서 그 날이 오는 것이 아니야.

그들의 만행에 절대적으로 저항하고 투쟁해라.

광민 예.

상룡 그리고 한 가지 약속해 줄 것이 있다.

광민 무엇입니까.

상룡 국토를 회복하기 전까지는 내 유골을 고국에 싣고 가지 말아라.

광민 그런 말씀 마십시오.

상룡 내 몸과 마음은 누구보다 내가 잘 알고 있어.

그렇게 해주거라.

잠시 이 곳에 묻어두고 기다려라.

독립의 그 날이 되면 내 고향땅 안동에 묻어주거라.

알겠느냐.

광민 예, 백부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룡의 노래

내 고향 안동에는 지금쯤 봄이 왔을까

버드나무 늘어진 평상에 앉아

흐드러지게 핀 철쭉 냄새 맡으며

부모 형제 오롯이 앉아

웃음 꽃을 피웠었지

내 고향 안동에는 지금쯤 봄이 왔을까

암전

제3막 그 날이 오면

스크린에 영상 보여진다.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사람들의 모습.
곧 무대에 사람들 모여 합창 시작된다.

합창

그 날이 왔다

광복의 그 날

쭈고 어둡던 긴긴밤 지나

아침이 왔구나

조국의 아침

내 형제 피를 받아

내 동지 살점을 받아

이루어낸 광복이여

그 날이 왔다

광복의 그 날

쭈고 어둡던 긴긴밤 지나

아침이 왔구나

조국의 아침

바다 건너 내 땅을 앗아간

그들의 만행 잊지 않아

이곳을 지키련다

그 날이 왔다

광복의 그 날

쭈고 어둡던 긴긴밤 지나

아침이 왔구나

조국의 아침

합창단 퇴장하면 광민의 집.

휠체어에 탄 광민의 모습.

건장한 청년이 된 아들 상호는 신문을 소리 내어 읽고 있다.

상호 태평을 열어가길 바라지 마지 않는다.

아버지, 다 읽었어요.

광민 다시 읽어다오.

상호 아버지 벌써 다섯번째인걸요?

광민 다시 읽어다오.

상호 짐은 세계의 대세와 제국의 현 상황을 고려하여 비상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 때 수현 들어온다

수현 또 일본항복선언문 읽고 있는 게야?

상호 예, 어머니.

벌써 다섯번째예요.

수현 여보, 지겹지 않으세요?

광민 아니, 읽을 때마다 흥이 나요.

수현 호호, 참 대단하세요.

상호 그러게요.

수현이 약사발을 광민에게 먹인다..

수현 약 드시고 다시 읽으십시오.

광민이 약을 들이킨다.

상호 다시 읽을까요?

광민 상호야, 오늘이 며칠이냐.

상호 10월 18일입니다.

광민 두 달이 되었구나.

상호 예, 해방된 지 딱 두 달 째예요, 아버지.

어서 몸을 회복해야 안동으로 가실텐데요…….

광민 백부님과 준형이 형님의 유해도 모시고 가야 한다.

상호 그럼요, 알고 있어요.

수현 걱정마세요, 여보.

백부님과 하신 약속을 지키게 되었으니

아무 걱정 마시고 몸 생각만 하세요.

광민 어서 빨리 돌아가고 싶다.

가서 이 늙은 몸을 뉘어야 할텐데 말이야.

상호 그 곳은 어떤 곳이에요?

광민 안동 말이나?

상호 예, 아버지의 고향, 꼭 가보고 싶어요.

광민의 노래

봄이면 철쭉이 흐드러지고

여름이면 찬 계곡에서 떡을 감고

가을엔 은행나무 노랗게 물들어

겨울은 소복소복 눈이 쌓이네

꿈에서만 만나던 그곳

내 뿌리가 있는 그곳

이제 돌아가려하나

이 늙은 몸 말을 듣지 않아

내 몸은 죽어도

정신은 영원히 살리라

내 따뜻한 고향에 돌아가

영원히 살리라

(합창)

봄이면 철쭉이 흐드러지고

여름이면 찬 계곡에서 떡을 감고

가을엔 은행나무 노랗게 물들어

겨울은 소복소복 눈이 쌓이네

꿈에서만 만나던 그곳

내 뿌리가 있는 그곳

이제 돌아가려하나
이 늙은 몸 말을 듣지 않아
내 몸은 죽어도
정신은 영원히 살리라
내 따뜻한 고향에 돌아가
영원히 살리라

노래를 마치고 숨을 거두는 광민
수현과 상호가 오열한다.

(합창)

내 몸은 죽어도
정신은 영원히 살리라
내 따뜻한 고향에 돌아가
영원히 살리라

<끝>